

## 4) 국립 경주박물관(1972)

박물관 건축형식은 그 기능이나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 될 수 있다. 다른 기능의 건물과는 달리 공간적인 연계나 전시의 기능보다 기념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과거의 것을 담는다는 기능을 이유로 현대 재료를 통한 잘못 모사된 형식은 기존의 건축양식에 대한 평가절하로 귀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건축형식, 또는 양식에 대한 규칙을 부정하는 입장이 되어 형식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기념성이라는 기능이 형식해석으로부터의 유추보다는 형식 외부에서 찾아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국립 경주박물관'의 경우는 역사적이고 복고적인 건축양식으로 역사적 모티브를 추상화하여 모사하고 있다.

경주박물관의 평면을 분석하면 전체형식은 중앙의 로비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기둥의 그리드에 의해서 규격화되고 있으며, 외부에서 진입하는 4면의 계단을 통해 중심성을 획득하고 있다. 경주박물관은 이런 규격화나 중심성을 통해서 격식과 질서감을 갖추어서 고전을 추상화하고 있다. 건물의 전시장은 2층에 위치하는데, 외부의 벽과 기둥은 주랑을 만들어서 공간의 쉼을 만들고 있다. 이 공간은 작가가 자주 사용하는 형식으로 고전

축의 어느 공간을 연상하게 한다. 더군다나 시야가 열려 있어서 정자나 루의 느낌을 준다. 만일 기능과 상관없이 벽의 창이 열리고 닫힐 수 있었다면 공간은 더욱 개방적이고 다양해 질 수 있었을 것 같으나 박물관의 기능에 의해 창은 외부로 개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계단하부의 주초석은 이미 '절두산 순교기념관'과 '국립극장'에 이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축요소로 이곳에서는 하부공간의 깊이감을 더해주고 있다.(1층 기주로 둘러싸인 공간-은 창고로 사용되고, 전시기능은 누(樓)상의 2층에서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기둥의 처리는 노출콘크리트를 다듬어서 처리함으로써 거친느낌보다는 매끈한 느낌을 주고 있다. 모서리 기둥의 하부처리 방식이 다른기둥에 비해 특이한데, 췌기처럼 가로 부조재를 박아줌으로서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보이게

## 한국의 건축가 - 이희태(3)

Korean Architect, Lee Hui-Tae

이희태 건축에 나타난 건축어휘의 특징

梁勝宿 / 자유기교가

by Yang Seung-Suk



경주박물관(기주)

한다. 이러한 구조법은 우리나라 고건축의 독특한 형식으로 고전건축 어휘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보여주는 면이다. 그리고 상세에 대한 감각이 발휘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지붕인데, 처마 아래의 서까래를 단순화하고 추상화하여 몇줄의 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귀솟음과 함께 전통적인 이미지를 더하는 것인데, 이러한 디테일은 보편적인 가치 이상으로 보인다.

### 5) 국립 공주박물관(1974)

1971년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5호분과 6호분의 침수 방지 공사를 하던 중 무령왕능이 발굴되었다<sup>66)</sup>

이곳에서 출토된 부장품을 수장하고 전시하기 위해 선화당<sup>67)</sup>이라는 전통목조건축물 맞은 편에 공주 국립박물관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 박물관은 고고학적 성과가 건축적으로 표현된 작품으로, 지역의 특성과 기념전시장의 성격을 담아내야 하는 양면적인 요구사항을 담보하고 있다. 덕분에 경주 국립박물관과 같이 '근대건축의 몸체위에 전통적인 요소'<sup>68)</sup>를 부가함으로써 기념성을 표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과거의 것과 현대의 것이 강한 대조와 조화로 통합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기존의 것에 대한 긍정의 자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박물관 건축의 경우 건축 형태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표현을 요구하거나 그 요구에 응한 것은 박물관 건축의 성격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박물관은 건축어휘의 모티브를 발굴된 무령왕능의 형식으로부터 찾아내고 있다. 이것은 적극적인 전통어휘의 사용자세로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평면상에서는 공간 연계성 측면-주 전시동과 부수 공간, 그리고 소장당이 미흡하게 해결 되었다.

그러나 입면과 평면의 연계에서 박물관이라는 기능상 반드시 엄두해 두어야 하는 창과 빛의 관계는 소홀하지 않게 취급되었다고 보여진다. 우선 측면의 창은 디테일을 통해 창의 정면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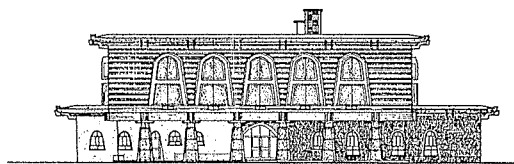
측 창은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데, 창의 정면을 외장재로 마감하고 측면창을 설치함으로써, 직사광선을 피하고 있다. 그리고 천장의 경우는 삼각형의 고깔모양을 취하면서 한면으로 빛이 삼입되게 되었는데, 실내에 그릴을 설치함으로써 직사광선을 피하고 있다. 여기서 작가가 원했던 것은 톱라이트 기능보다는 '빛우물'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러한 점은 부산 시립 박물관(1976)의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발견되는데, 중앙의 중정을 위시하여 열려진 개구부로 인하여 전시 효과의 시각적 집중성이 떨어지는 등 중정<sup>69)</sup>의 개방이 사실상은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정을 향하고 있는 전시장의 창을 형식만 남겨두고 뚫지는 않음으로써 전시장에 직사광선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단면구성은 주공간을 피로티 위에 설정하고 있는데, 외부에서의 진입을 피로티 사이로 하여 평면의 중앙부분으로 진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평면은 중심에 1,2층이 통하는 홀이 있는데, 이 홀에는 전시장이 유도하는 계단이 있고, 이 홀을 중심으로 전시공간이 구획되어 있다. 즉 평면형식은 2층의 전시공간이 정방형을 이루고, 부대공간으로 소요되는 1층은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이희태의 박물관건축-경주박물관, 공주박물관, 부산 시립박물관-의 공통점을 분석하면 몇가지가 있는데, 계단, 로비, 중정 등을 공간 중심에 두어 중심성을 획득하고 있다든가, 주 전시공간이 모두 2층에 위치한다는 것, 그리고 출입문을 중심으로 평면 및 입면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이 건물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전통과 권위주의의 산물이라는 측면인데, 이희태에게는 고전건축 어휘를 현대화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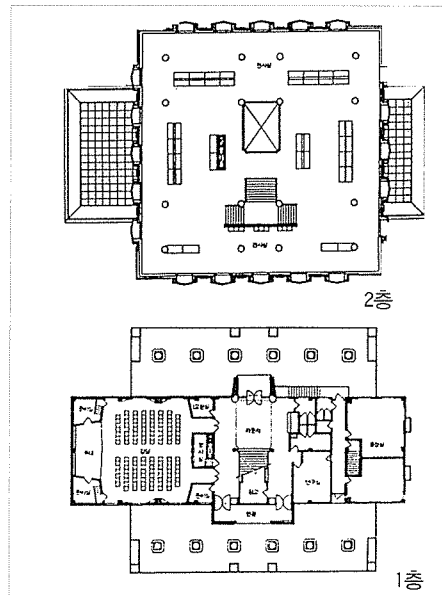
다음으로 입면을 분석해보면 창의 형식이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뿐 출입문의 형식까지 동일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령왕능의 형식을 모방한 것이다. 여기서 돌출된 창은 전체적으로 마치 갑옷을 입고 있는



공주박물관



공주박물관동측입면도



공주박물관 평면도

67) 유형문화재 92호인 선화당은 충청도 관찰사의 감영청이었던 건물이다. 본래는 공주사대 부속고등학교 자리에 있었는데, 공주박물관 자리로 옮겨 새 박물관이 지어지기까지 무령왕릉 발굴 이전-공주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헐려서 무령왕릉 근처의 관아 건물터로 이전 복원되었다.

장군의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데, 이 이미지는 박물관의 기능과 어울리는 이미지로 수장품들을 지켜야 한다는 개념과 잘 맞는다. 이 건물에 대한 비평<sup>70)</sup>을 살펴보면, “건축가는 천창을 통하여 내려오는 빛이 주공간을 균질하게 채우리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너무 강해서 관람을 방해하고, 북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희미해서 천창의 존재는 거의 인식되지 않는다.”<sup>71)</sup>라고 ‘천창’을 해석하고 있는데, 빛과 내부기능에서 살펴보았듯이 작가의 의도는 다른데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천창 형식은 ‘연암회관(1979)’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천창 하부에 루버를 두었다는 것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다음에 인용되는 글도 송인호의 비평중 일부인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성과 전통성의 표현에서 전통적 형태를 근대적 재료로 표현하는 것보다 근대적 형태를 전통적인 재료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 더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sup>72)</sup> 즉 이 평가는 한국의 토착성에 대한 가능성을 실험한 것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실지로 이 건물의 표현방식은 무속신앙의 화법만큼이나 강렬하다. 그러면서도 절제된 표현을 잃지 않고 친근한 재료(전벽돌)를 사용함으로써 주변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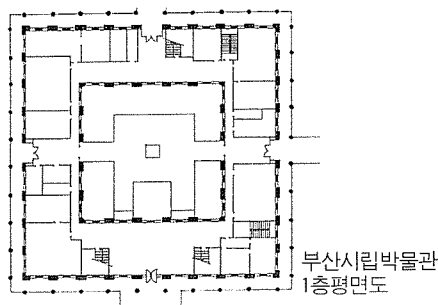
#### 6) 부산 연암회관(1979)

1980년 2월에 준공된 ‘부산 연암회관’은 럭키기념관으로 럭키 초대회장인 구연경의 자택이 있던 자리에 ‘자택’을 허물지 않으면서 ‘기념관’을 건립하는 계획이었다. 자택을 허물지 않는 것이 설계조건이었던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작품의 성격-전통과 관계되는 프로젝트, 박물관류-으로 보았을 때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더군다나 이 건물의 기능이 과거의 것을 보존하고 담고 기념하고 전시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기존의

주택을 그대로 활용하지는 의견은 타당성있는 제안이었을 것 같다.

평면을 분석하면 전체 형식은 원형을 이루고 있고, 전시공간도 외벽을 따라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앙에 기존의 주택-전시공간의 일부로 건물자체가 전시물이기도 하다. 이 집은 타일마감으로 50년대 지어졌다고 한다-이 직사각형으로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단면적으로 건물은 지상 2층, 지하1층의 철근 콘크리트조에 적색 타일(벽)과 청동판이(지붕)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다. 외장재로 세로로 긴 타일을 사용한 것은 건축물의 형태가 원형을 이루다 보니, 가로로 긴 타일보다는 원형 벽을 마감하는데 적절했을 것이다. 지붕형식은 ‘부산 시립박물관’과 같은 형식으로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면에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고전건축의 처마, 속 처마를 단순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주 국립박물관’과 ‘부산시립박물관’에서 보았던 천창이 같은 형식으로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데, 지붕형식과 함께 건물의 부에서는 인지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곳에서도 천창에 루버를 설치하여 그곳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미약한데, 이것은 공주 박물관에서 살펴본 이유와 같다고 생각된다. 원통형<sup>73)</sup>의 평면과 다각형의 경사지붕, 원호를 이룬 출입구는 연암회관의 가장 큰 특징으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그간의 건축물들에서 발견된 어휘들을 극도로 축약시킨 것으로, 작가의 실험성이 최고조의 절제와 어휘의 단순화를 통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립극장, 경주 국립박물관 등에서 나타난 기단부 처리는 극단적으로 배제되어 버리고 일련의 외부 돌출 기둥들도 원통형의 벽 속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기하학적 구성<sup>74)</sup>의 겹침이 전반적으로 이 건축물의 균형을 어색하게 한다는 점은 그의 시도가 가져다 준 모험에서 거들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다. 건물 전체에 운동감을 불어 넣어주는 요소는 1,2층을 연속하는 세



부산시립박물관  
1층평면도



부산시립박물관 중정



부산시립박물관 전경

68) 송인호, 공주박물관의 형태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4호 통권 66호, 9404

69) 이것은 다른 측면인데 ‘부산 시립박물관’의 ‘중정’은 따로 분석대상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풀 한 포기 없이 비어 있는 이 공간은 비어 있음으로 꼭 차기도 하고, 비어 있음으로 담담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공간은 실용공간이기 보다는 관조의 대상으로 이 건물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로로 긴 창-성당건축에서 주로 사용한 형식-으로, 원통형 벽면의 단조로움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리고 완벽한 원형을 이루는 벽은 마리오모타의 사무실건물(1989)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공통점은 작가의 재료를 통한 토착성과 건축의 형태를 추상해 온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 건물에서도 평면은 좌우대칭과 상호대응의 형식을 띄고 있는데, 기능을 사각형이나 원속에서 소화시킨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전체적인 생활감정과 이러한 감정에 대응하는 현재의 상태를 영구화하려는 소망의 표현으로-기념관 기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모른다-개인적 자유보다는 규범을 위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범을 따르는 것이 어떤 완성에 이르는 방법<sup>70)</sup>이라고 작가는 간주했던 것 같다. 이러한 것을

통해 형태자체에 대한 집착은 극복되었고, 근본적인 원리를 반영하려는 순수주의적인 측면이 더욱 엄격하게 부각되고 있다.

### 7) 성 라자로 마을(1972~1981)

'성 라자로마을'은 '나병환자촌'으로 이 속에서 그들의 삶은 모두 영위된다. 특별한 불 일-봉사자, 의료진-이 있지 않고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도, 이곳을 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다. 어떤 독자적인 세계를 구성하고 만들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곳의 원장은 이 마을의 초대 신부로 부임했던 이경재신부로 7대째 이후 계속해서 맡고 있다. 마을의 최초계획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희태씨가 마스터플랜에 참여하게 된 것은 1971년 이후<sup>71)</sup>이다. 대다수의 건물은 이희태에 의해 계획이 되었고, 성당<sup>72)</sup>만이 이경재 신부의 의견에 의해 유희준에 의해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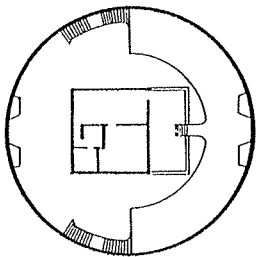
건물들의 재료는 평이한 재료를 사용하였는데, 페인트

색갈의 다양화와 독자적인 디자인어휘의 개발로보는 즐거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디자인 양식의 변화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의 70년대의 문화시설건축물<sup>73)</sup>의 변화에서 보이는 양상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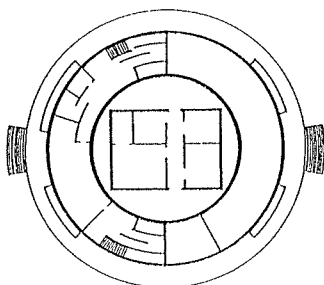
마을전체가 산비탈에 위치하다 보니, 건물얹히기와 건물과 건물간의 연계성을 두는 것이 작가로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배치의 형상을 단면적으로 분석하면, 몇개의 층으로 나뉘어 건물들이 얹혀 있음이 나타난다. 우선 수위실을 지나서 왼쪽 길을 접어들면, '직원식당, 사제관, 사무실'이 한 덩어리를 이루면서 층을 형성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접어들면 한편에는 '라자로의 집(강당)'이, 다른 한편에는 '아록의 집'이 경사지에 얹혀져 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치유의 집, 정결의 집'이 선으로 연결되면서 위치한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휴식장소 겸 주차장을 위한 평지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경사지를 오르면 '반석의 집, 샬벌의 집'이 같은 높이에 위치하고, '모듬의 집'이 좀 떨어져서 위치한다. 그리고 '토마스의 집, 기쁨의 집, 고마움의 집'이 같은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다.

여기까지가 주로 주민들의 생활영역이고, 주차장의 왼편으로 봉사자들의 '우리의 집'과 '수녀원, 수녀원식당'이 사무실군과 연결되면서 위치한다. 그리고 이 마을의 상징인 '성당과 탑'이 그 상부에 위치한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한편으로 치우쳐 있는 '라자로의 무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형식으로 일명 '묘지아파트'-유럽 등지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이다. 성 라자로 마을은 이런 형식으로 작은 건물군이 하나의 층을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고전건축의 배치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주로 산지형 가람배치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계단이나 비탈을 오르고 나면 넓지 않은 평지에 크지않은 건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



부산연암회관 2층평면도



부산연암회관 1층평면도



부산연암회관

70) 송인호, 미완의 개념과 장인정신, 건축과 환경, 9004  
공주박물관의 형태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 10권4호 통권 66호, 9404  
71) 송인호, 공주박물관의 형태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 10권 4호 통권 66호, 9404

성 라자로 마을의 건물

건물명	설계자	준공년	건축면적	기능	마감	특징
정결의 집	이희태	1971	14평	이발소,목욕탕	시멘트벽돌	벽돌의 마감이 정결하게 이루어짐
사제관식당	이희태	1972	40평	식당	시멘트벽돌	출입문에 작가 특유의 눈썹이치가 보임
반석의 집	이희태	1972	32평	남자숙소	호박돌	지붕의 처마형식이 선적인 요소로 독특
셋별의 집	이희태	1973	54평	남자숙소	타일	외장재만 다르고 반석의 집과 같은 형식
토마스의 집	이희태	1973	56평	부부숙소	적벽돌	지붕구조를 지붕까지 연결하는 독특한 형식
성당	유희준	1975	126평	성당	돌	
우리의 집	이희태	1876	22평	봉사자휴게실	시멘트벽돌	길에서는 1층 주차장에서 지하층 인식
모듬의 집	이희태	1979	145평	여자숙소	적벽돌	붉은 지붕재가 주위의 나무색과 어우러짐
라자로의 집	이희태	1981	278평	강당	적벽돌	옆에 지어진 외부화장실의 가벽이 독특
치유의 집	이희태	1982	102평	병원	적벽돌	담쟁이덩굴이 어우러져서 친근감 연출
사무실	이희태	1983	31평	사무실	시멘트벽돌	넓은 창을 통해 외부의 자연을 끌어들임.
아록의 집 구관	엄이건축	1986	360평	노인숙소	타일+페인트	
아록의 집 신관	엄이건축	1990	358평	노인숙소	타일+페인트	

물건을 이루고 있는데, 단면으로 보았을 때는 계단식 배치로 라자로 마을과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고전의 형식을 이런 배치형식 모방과 토착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현대화를 추구했다. 건물형식을 분석하면, 외장재의 종류별로 건물들을 분류할 수 있는데, '수녀원식당, 수녀원, 우리의 집, 직원식당, 사제관, 그리고 정결의 집' 등은 시멘트벽돌 세워쌓기에 가로줄눈을 넣음으로써 마감을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사무실, 라자로의 집, 치유의 집, 모듬의 집, 그리고 셋별의 집' 등은 붉은 벽돌로 마감을 하였으며, '고마움의 집'은 타일로 마감을 하였고, '반석의 집'은 호박돌 거친층 쌓기로 마감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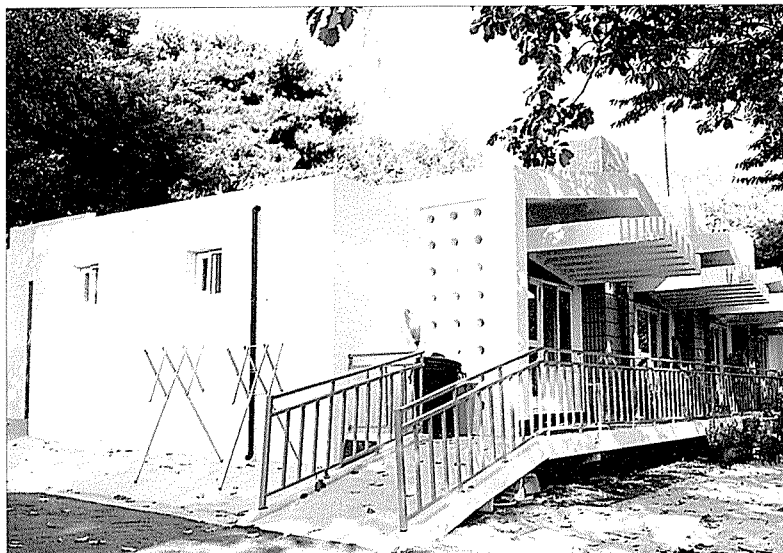
였다. 그리고 부분 부분 모르타르에 수성페인트로 마감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물을 구분시키는 것은 지붕의 형식이다. 경사지에 위치하다보니 구조적으로 필요해사인 지, 지붕재가 바닥까지 연결된 형식-토마스의 집, 고마움의 집-이 보인다. 그리고 처마를 추상화한 형식으로 부재(서까래)를 정면으로 길게 뽑은 형식-반석의 집, 셋별의 집-이 있는데, 이것은 집이 남향함으로서 해서 더욱 공간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기쁨의 집은 평지스라브로 건물 전체를 육면체로 만들고 있는데, 이 건물의 특징은 측면에 세장하게 세워진 부재로, 서향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면서, 건물에 리듬감을 부여한다. 살펴 보았듯이 건물들은 재료나 규모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건물들은 전통건축의 대칭성에서 유추한 전면의 중심성에 대한 관심<sup>72)</sup>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원초적인 환경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토착적인 것과 고전적인 것, 그리고 원초적인 공간형상의 추구가 융합되고 있다. 그리고 친숙한 것, 윤곽이 지나치게 뚜렷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낯은 느낌의 재료를 선호하면서 우리건축의 기억을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으며, 또한 형식에 대한 극단적 추구를 경원하면서도 근대적인 비례와 조화를 중요시하고 있다.

마치는 글

이희태(1925~1981)는 식민지기간에 교육을 받고 해방이후에 활동이 활발했던 건축가로 주요 작품시기는 50년대 중반부터 80년대초까지이다. 이희태가 추구했던 건축은 서구근대건축-국제주의건축-의 토착화와 고전양식의 현대화로 형식의 혼합적 결합이 아닌 발전적 통합이었다. 이러한 것은 이희태의 건축에 전반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본문에서는 작품을 시기적인 분류보다는 건축형식의



성라자로 마을- 반석의 집



성라자로 마을- 토마스의 집

72) 송인호, 공주박물관의 형태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 10권 4호 통권 66호, 9404

73) 여기서 원형이라는 하나의 형식이 선택된 것은 시각에 불과한 것으로, 그 소재로서 선택된 원형은 본질적으로 그 대지와 조화되면서도 공간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작가의 역량과 관련된 문제로, 20년대의 순수주의자들이 주창했던 primary한 형태, 원통이나 기하학적인 형상들이 소재로 선택 되었다.



특징을 중심으로 '건축의 새로운 형식추구'와 '고전건축어휘의 현대화추구'로 분류하여 작품을 분석했다. '건축의 새로운 형식추구'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건축물은 명수대성당(1952), 송림동성당(1954), 경주성당(1955), 진해성당(1955), 혜화동성당(1955) 등의 종교건축과 제동빌딩(1956), 메트로호텔(1956), 무역센터(1968) 등의 사무소건축, 그리고 계성여고특별교실(1954), 서강대신부관(1960), 명지대학교본관(1962) 등의 학교건축, 용산양곡방열창고(1966-68)의 창고건축, 그리고 힐사이드아파트(1978) 등이 있다. 이 건축물들은 모더니즘 계열로 모더니즘의 기술적 바탕위에 자신의 개성적 형태언어를 결합하는 일에 몰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명수대성당과 혜화동성당 등 종교건축은 기존의 관습으로 획일화된 종교건축양식-고딕양식-을 벗어나, 성당건축에 새로운 형식-종탑, 입면, 평면-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고, 제동빌딩은 입면에 커튼월 형식의 도입과 자유로운 평면으로, 그리고 명지대학교 본관은 기존의 산자형 입면과 평면을 기능주의 형식을 통해 벗어남으로 해서, 그리고 용산양곡방열창고는 구조미를 통한 방식으로 새로운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역회관은 격자창을 벗어난 입면과 친근한 재료를 통해 국제주의 형식을 토착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힐사이드아파트는 성냥갑이라는 기존의 아파트 형식을 입면과 평면형식을 통해 깨뜨리므로써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고 있다.

즉 명수대성당, 혜화동성당, 제동빌딩, 명지대학교본관, 용산양곡방열창고, 힐사이드아파트는 기존의 형식을 탈피해 벗어나므로써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는 공통성을 갖고 있고, 무역센터를 비롯한 명지대학교 본관은 친근한 재료를 통해 국제주의 양식의 토착화 경향을 시도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고전건축어휘의 현대화추구'는 순교복자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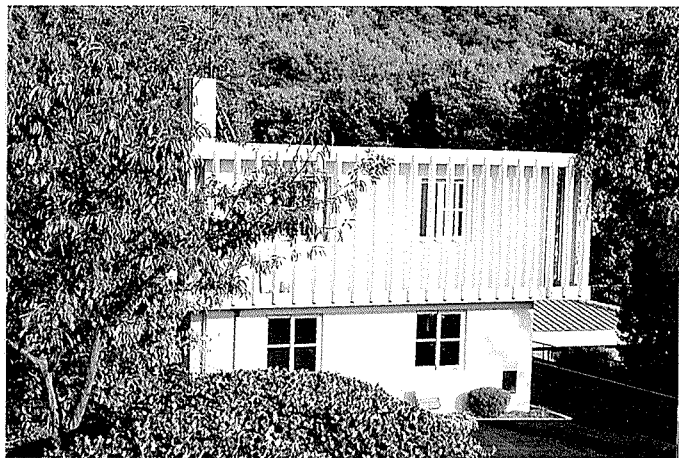
(1967)에서 시작하여, 국립극장(1969), 국악사양성소(1969),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1972), 국립공주박물관(1974), 부산시립박물관(1976), 부산연암회관(1979) 등 박물관 건축에 주로 나타나는데, 이들 작품에서 일부는 전통의 몰입으로 복고주의 양상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고전건축어휘를 형태의 단순화와 재료의 변화를 통해 현대화를 시도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순교복자기념관은 고전건축의 다양한 형태어휘-지붕, 기둥, 기주, 주랑, 서까래 등-를 재료의 변형과 단순화를 통해 작가의 독창적인 건축어휘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국립극장은 3부체계의 도입과 순교복자기념관에서 보여준 건축어휘를 변형해서 사용하므로써 전체형식에 고전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악사양성소는 수평으로 긴 지붕선의 강조와 쌍기둥, 기주, 주랑을 통해 고전건축의 비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은 복고주의 경향의 지붕을 도입하므로써 지역성을 보여주고자 했고, 국립공주박물관은 창의 형식과 마감재료를 통해 토착성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부산의 연암회관은 앞에서 보여준 박물관과는 다른 건축어휘를 보여주는 건물인데, 원형의 전체평면 속에 직사각형의 평면이 내부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극도의 추상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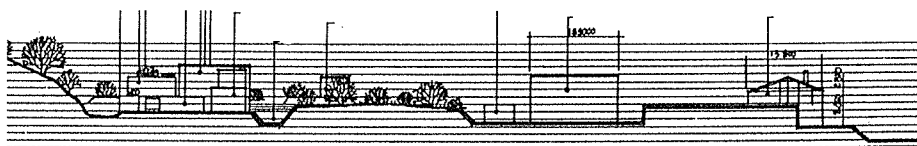
이 작품들은 당대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논란-주로 전통논란-을 일으켰던 건물들로, 이 건물들이 의의를 갖는 것은 건축어휘, 비례, 입면형태, 재료 등을 통해 고전건축어휘를 현대화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회태의 작품들이 갖고 있는 공통어휘를 혜화동성당과 순교복자기념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회태의 작품 흐름 속에서 이 혜화동성당은 종교건축에서, 순교복자기념관은 전통어휘를 현대화하는 측면에서 전형성을 획득하고 있다. 혜화동성당은 1952년에 설계된 명수대성당을 시작으로 송림동성당(1954), 경주성당(1955), 진해성당(1955), 그리고 전주교구주교관(1957), 아현동성당(1958), 청파동성당(1968), 다시 압구정동성당



성라자로 마을 배치도



성라자로 마을 - 기쁨의 집



성라자로 마을 종단면도

74) 그는 작품활동 초기인 1950년대부터 기하학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성당의 종탑에 디자인 되어 뚫린(open) 모습은 마치 몬드리안의 평면구성을 보는 면 분할을 느끼게 한다.

75)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근세편 상, A. 하우저, 백낙청, 채성원 공역, 창작과 비평

(1981)에서 연속성을 보여준다.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건축어휘는 종탑형식(가장 특징적인 형식), 지붕형식(해화동성당은 기벽속에 숨어 있다.), 현관앞의 쌓기등, 제단옆의 세로로 긴 창, 성당 측면의 창형식, 그리고 강당형을 이루는 평면형식이다. 즉 이러한 건축어휘를 통해 새로운 형식을 추구했다.

1967년에 설계된 순교복자기념관은 고전건축어휘의 현대화를 시도했던 초기의 작품으로 전통형식의 단순한 모방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해석을 통해 창조적으로 창출했다. 이 기념관에서 나타난 건축어휘들은 이후에 설계되는 국립극장(1969), 국악사양성소(1970), 국립경주박물관(1972), 국립공주박물관(1974), 부산시립박물관(1976) 등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국립극장과 국악사양성소에서는 쌓기등, 기주, 주랑 등이 연속해서 사용되고 있고,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기둥과 보의 구조법과 주랑, 기주형식이 나타나고, 공주박물관에서도 기주형식이 공통어휘로 나타난다. 정리하면 이희태의 건축특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건축의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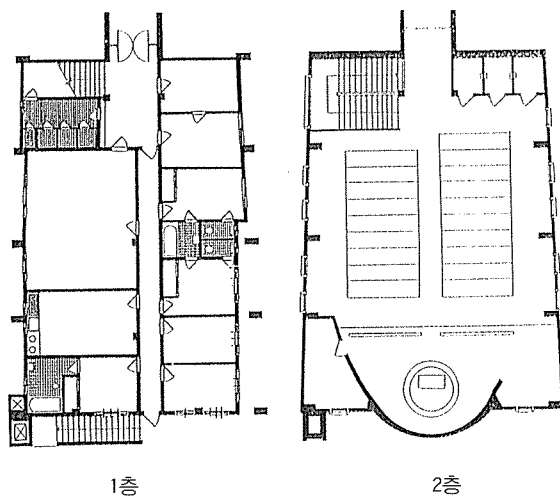
형식추구' 이고, 둘째는 '고전건축어휘의 현대화추구'이다. '건축의 새로운 형식추구' 범주에 속하는 건축물은 50년대, 60년대의 근대기능을 요구하는 건물들이고, '고전건축어휘의 현대화추구' 범주에 속하는 건축물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말까지의 문화시설로 고전형식을 요구하는 건물들이다.

'건축의 새로운 형식추구' 범주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기존의 형식으로부터 벗어난 독자적인 형식추구, 둘째, 재료와 형식을 통한 국제주의 건축의 토착화추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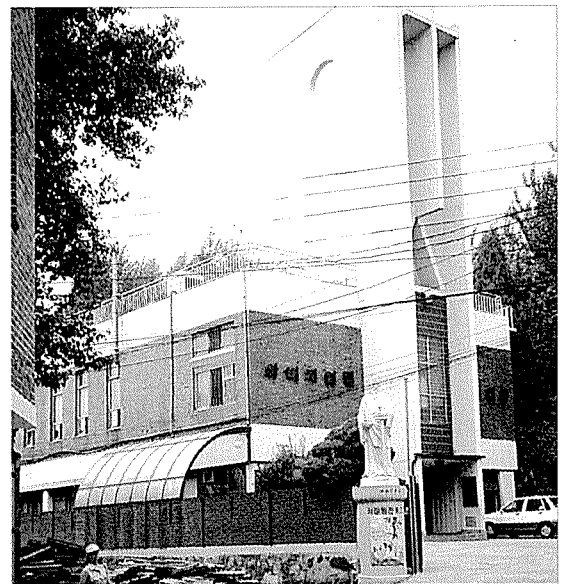
해화동성당 등의 종교건축은 새로운 형식추구의 대표적인 건물들로, 고딕식의 첨탑을 사용하지 않았고, 종탑을 본 건물로부터 독립시켰으며, 강당형평면을 갖는 등, 그 특징은 평면과 형태에서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명지대학교 본관은 식민지 시기부터 내려오던 산자형 입면과 평면을 벗어나고 있고, 평면의 기능을 입면에 드러내고 있으며, 노출콘크리트와 적벽돌의 사용으로 국제주의 형식의 토착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희태 건축의 시기별 특징

유형	주요 작품			표현상의 특징
	50년대 작품	60년대 작품	70년대 작품	
건축의 새로운 유형 추구	명수대천주교성당(1952), 계성여고(1954), 경주천주교성당(1955), 해화동천주교성당(1955), 제동빌딩(1956), 메트로호텔(1958)	명지대본관(1962) 서강대신부관(1962) 용산양곡방렬참고(1966~68) 무역회관(1968)	힐사이드 아파트(1978)	* 기존건물양식으로부터 탈피 1. 명수대성당 및 해화동성당은 기존의 고딕형식으로부터 탈피 2. 제동빌딩은 입면의 명쾌성 도입 3. 명지대본관은 산자형 학교건축형식으로부터 탈피 4. 용산양곡방렬참고는 박스형태로부터 탈피
고전 건축 어휘의 현대화 추구		순교복자기념관(1967) 남산 국립극장(1969)	국악사양성소(1970) 경주국립박물관(1972) 공주국립박물관(1974) 부산시립박물관(1977) 부산연암회관(1979)	* 고전건축어휘에 대한 연구 1. 순교복자기념관은 기주, 기둥, 지붕 등 여러가지 디테일을 통해 현대화 가능성 시도 2. 국립극장 및 박물관 등은 절두산에서 시도했던 것을 변형 확대사용



청파동 천주교 성당 평면도



청파동 천주교 성당

예술의 규범이 되는 통일성의 원리, 통일적 공간 감정, 비례의 통일적 기준, 하나의 모티브를 향한 묘사의 제한,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도의 통일적 종합은 합리주의 정신과 대응, 비합리적인 것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

76) 이희태 작품연보

77) 이경재신부에 의하면 이희태는 성당건축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이경재신부는 성당을 사랑으로 생각을 했고, 이희태는 기능적으로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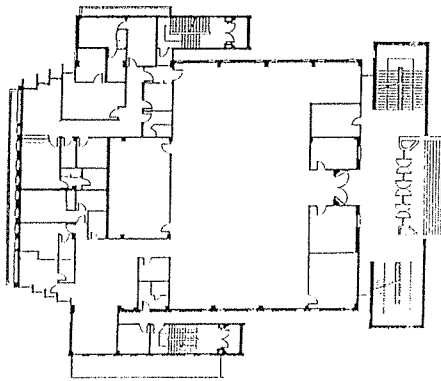
‘고전건축어휘의 현대화추구’ 범주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고전건축의 다양한 형태어휘를 단순화와 추상화, 그리고 재료의 변화를 통해 현대화시켰다는 것이다. 이 범주의 건축물에 나타난 건축어휘의 근원은 지붕, 기둥, 기주, 주랑 등의 고전건축어휘로, 이 어휘들은 기능의 큰 변화없이 형태와 재료의 변화

를 통해 현대화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순교복자기념관과 국립극장 등은 고전건축의 다양한 형태어휘를 실험을 통해 현대화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재료의 변화와 단순화, 그리고 형태변화로 다양한 형식이 실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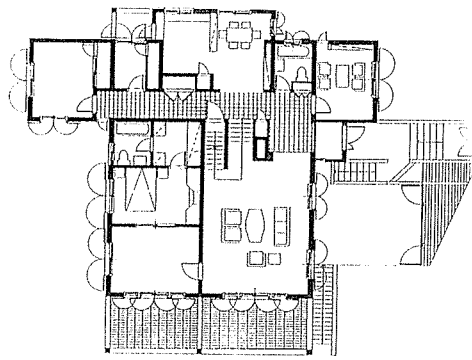
즉, 이회태는 한국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노력했던 건축가중의 한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회태 건축에 나타난 건축어휘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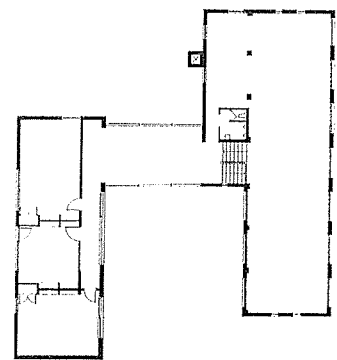
요 소	특 징	비 고
지 붕	1. 3부체계의 입면에서 지붕이 차지하는 의미는 크다.(하늘과의 접촉) 2. 작가는 각각 작품에서 고전건축의 지붕을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변형하고 추상화하여 여러가지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처마부분의 디테일: 기둥과의 연장선)	순교복자 기념관, 국립극장, 국악사양성소, 경주박물관
기 둥	1. 전체입면의 틀을 잡는 기능을 하는 기둥을 가늘게 사용함으로써 권위주의적인 느낌을 삭감한다. 2. 가는 기둥을 쌓으로 사용함으로써 안정된 입면상의 비례를 만들었다. 3. 재료: 노출콘크리트	순교복자 기념관, 국립극장, 국악사양성소, 경주박물관
주 랑	1. 건물의 외부를 기둥이 주랑을 구성하면서 커를 하나 만들고 있다. 이 공간은 궁궐건축의 회랑을 연상시킨다. 2. 공간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3. 외부공간을 내부공간화 한다. (내부공간 확장)	순교복자 기념관, 국립극장, 국악사양성소, 경주박물관
기 단	1. 대지로부터 건축물을 분리 2. 격이있는 공간으로 형상화 3. 궁궐건축이나, 사찰건축, 주거건축에서 쉽게 찾아 볼수 있는 형식(서양 고전양식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국립극장, 국악사양성소, 경주박물관, 부산박물관
기 주	1. 작가가 고전건축어휘에서 형상화하고자 했던 디테일 중의 하나(국립극장의 작가 참관기중에서) 2. 고건축의 樓下공간을 연상시킴	순교복자 기념관, 국립극장, 경주박물관, 공주박물관
배 치	1. 작가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건축요소 2. 경사진 대지에 적절하게 배치를 하여, 경사진 대지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 3. 특히 주거건축에 잘 나타나고 있음.	성라자로마을, 힐사이드 아파트, 순교기념관



압구정동 천주교 성당 1층 평면도



평창동 주택 1층 평면도



엄이건축 1층 평면도

각한 데에 이점이 있었던것 같다.

78) 1969년도 국립극장을 시작으로 1972년 경주국립박물관, 1974년 공주국립박물관, 1976년 부산시립박물관 등 문화시설 중심의 관주도 작품들을 살펴보면 디자인이 변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79) 치유의 집, 셋별의 집, 토마스의 집 등은 건물의 입면이 중심축을 갖고 대칭을 이루고 있다.